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3-9】

2013. 8. 12.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잠재력과 시사점

목 차

I. 검토 배경	1
II. 아세안 경제의 성장잠재력 분석	4
III. 아세안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9
IV. 시사점	12

국별조사실

작 성: 책임조사역 임영석 (3779-5704)
yslim@koreaexim.go.kr

확 인: 실 장 이한구 (3779-5702)
hklee@koreaexim.go.kr



■ 유로존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¹⁾ 회원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포스트브릭스(post-BRICs) 시장으로서 동 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반면, 일각에서는 아세안에 속한 중소득국들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²⁾'에 빠져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음. 이에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함.

I. 검토 배경

□ 지속적인 경제성장세 시현

- 최근 3년간 아세안 지역은 미국·유럽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 기반 및 내수 확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2013~14년에도 5.5%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10개 회원국 중 6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은 과거 3년 연속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표 1>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아 세 안	7.6	4.6	5.7	5.5	5.5
브루나이	2.6	2.2	1.3	1.2	6.0
캄보디아	6.1	7.1	6.5	6.7	7.2
인도네시아	6.2	6.5	6.2	6.3	6.4
라오스	8.1	8.0	8.3	8.0	7.7
말레이시아	7.2	5.1	5.6	5.1	5.2
미얀마	5.3	5.5	6.3	6.5	6.6

- 1)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협력기구로, 설립 당시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5개국이 참여하였으나, 1984년 브루나이,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가 차례로 가입하여 2013년 6월말 현재 총 10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정체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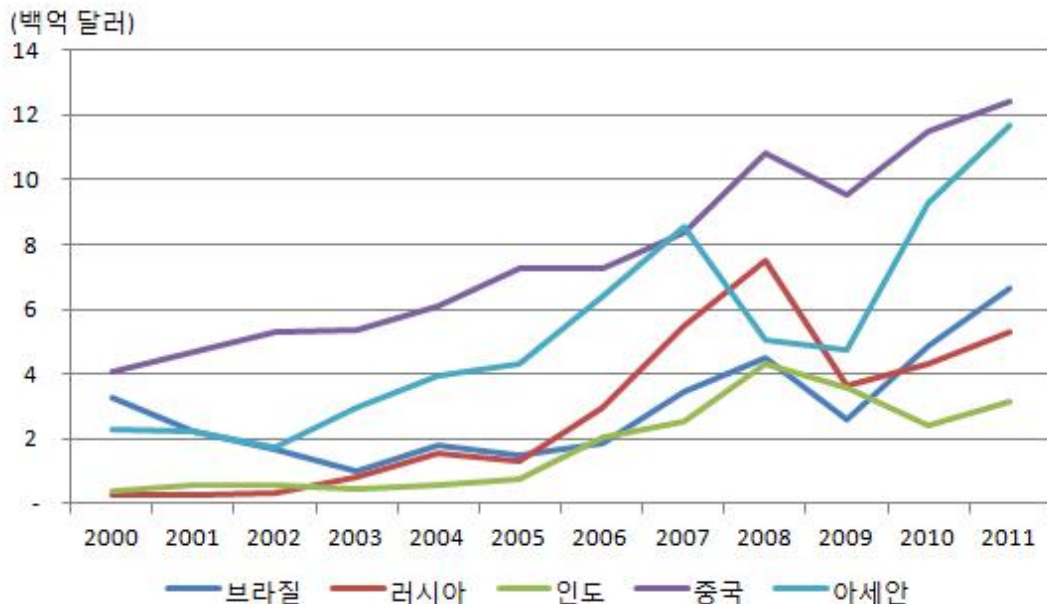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필리핀	7.6	3.9	6.6	6.0	5.5
싱가포르	14.8	5.2	1.3	2.0	5.1
태국	7.8	0.1	6.4	5.9	4.2
베트남	6.8	5.9	5.0	5.2	5.2
세 계	5.2	4.0	3.2	3.3	4.0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 Asia and Pacific* 및 *World Economic Outlook*

□ 최근 아세안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09년 474억 달러에서 2011년 1,165억 달러로 2배 이상 급증하여 2011년 기준 대 중국 외국인직접투자 규모(1,240억 달러)에 육박하였음.
- 브릭스 국가들은 성장세 둔화, 임금상승, 정부부채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저임노동력, 역내 시장 확대 등을 배경으로 매력적인 대체투자처로 부상함.

<그림 1> 연도별 대 BRICs 및 아세안 외국인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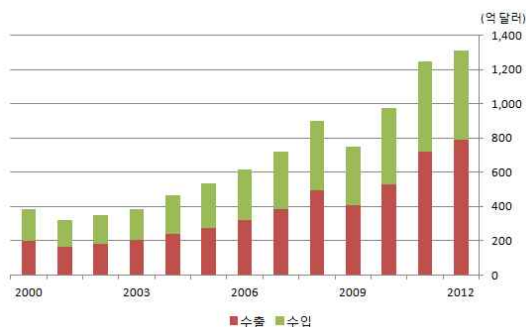
자료: UNCTAD.



□ 우리나라의 아세안시장 진출 역시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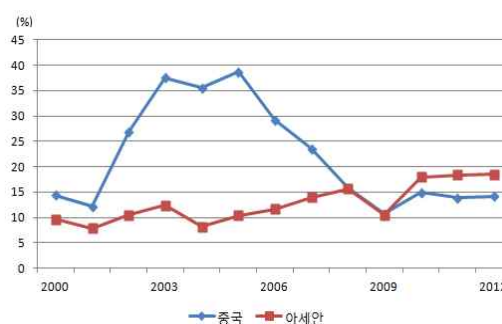
-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과 교역규모는 최근 10년간 각각 연평균 15.7%, 14.1% 증가하여 2012년에 수출 791억 달러, 교역규모 1,311억 달러를 시현하였음. 이는 동년 우리나라 수출액의 14.4%, 교역 규모의 12.3%에 해당됨.
- 특히, 싱가포르(326억 달러), 인도네시아(296억 달러), 베트남(217억 달러) 등 3개국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임.
-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해외투자규모(현지법인 기준)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6.1% 증가하여 2012년 43억 달러를 기록함. 이는 동년 우리나라 해외 투자금액의 18.4%에 해당되며 대 중국 투자비중(14.2%)보다 4.2%p 높은 수준임.
- 2012년 기준, 제조업과 광업이 각각 19.9억 달러와 12.9억 달러의 투자 금액을 기록하였으며, 광업에서도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12억 달러의 투자 실적을 보였음.

<그림 2>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 아세안 교역규모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 우리나라의 연도별 대 중국 및 아세안 해외투자비중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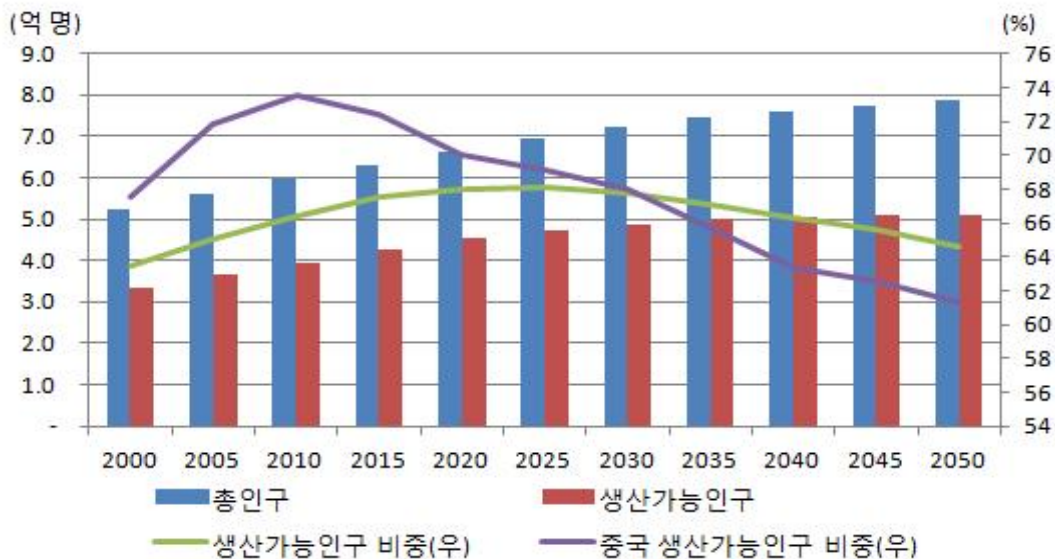


II. 아세안 경제의 성장잠재력 분석

□ 풍부한 노동공급과 중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제고

- 아세안 회원국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50년까지 약 6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풍부한 노동력 공급에 힘입은 경제성장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보유함.
- 인구수의 경우, 현재 약 6억 명에서 2025년에는 7억 명, 2050년에는 8억 명 까지 증가하여 2050년에는 세계인구 중 12.8%를 점유할 것으로 보임.
- 인구 증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수도 204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5년 약 68%까지 상승한 이후 2050년에는 64.6%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아세안의 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자료: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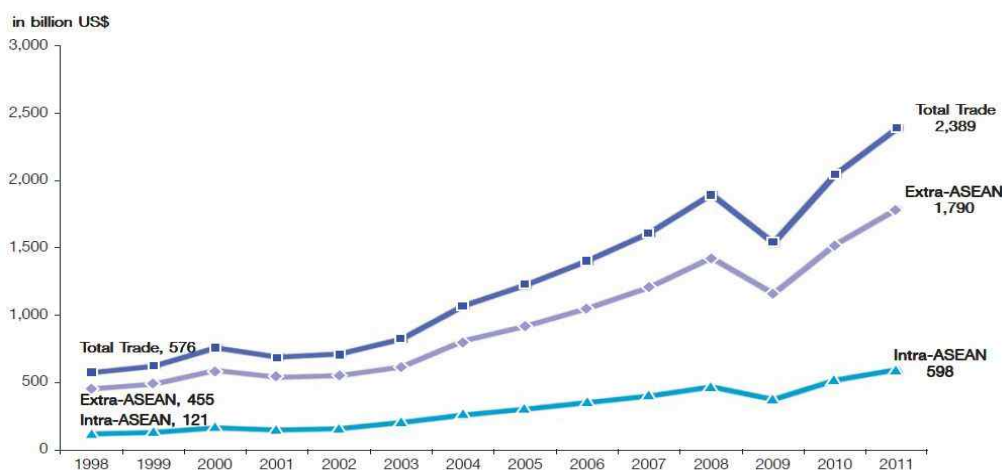
- 한편, 소득증가로 인한 중산층 인구 확대는 구매력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아세안 국가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됨.
- OECD에 따르면, 중산층 확대는 승용차 등 내구성 소비재(consumer durable) 판매량 증가, 교육·의료서비스 지출 확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내수시장 확대 및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음.



□ 역내외 경제통합 활성화

- 아세안 회원국은 아세안자유무역지대³⁾(ASEAN Free Trade Area, AFTA)를 창설하고 역내 국가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관세율 인하 및 관세인하대상 품목 확대 일정을 조정하여 역내 경제통합 수준을 제고함.
 - 역내 평균관세율 인하 및 관세인하대상품목 확대 추세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적 저소득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에는 자유화 일정을 다소 조정하는 등 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 비중이 2000년 22.8%에서 2011년 25.0%로 증가함.
 - 나아가, 아세안 회원국은 2015년까지 ASEAN 역내 상품, 서비스, 숙련 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통합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⁴⁾.
- 한편, 탈냉전 이후 아세안 회원국들이 점차 개방정책을 선택하고 2013년 라오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국이 WTO에 가입⁵⁾하여 글로벌 분업체계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외무역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

<그림 5> 아세안의 연도별 무역규모 추이



자료: ASEAN 사무국,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2.

3) 1992년 창설, 1994년 발효. 발효 당시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제외한 6개 회원국만이 참여 하였으나 현재 모든 아세안 회원국으로 적용대상국 확대
 4) AEC 구성에 대한 전망은 11쪽 참고.
 5) WTO 설립(1995년) 당시 회원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해당 되지 않는 캄보디아(2004.10 가입), 베트남(2007. 1 가입), 라오스(2013. 2 가입)은 2000년 이후 WTO 가입



- 또한,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차원의 포괄적인 FTA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차원의 양·다자적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표 2> 아세안 및 주요 아세안 회원국의 FTA 체결 추진 현황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ASEAN	한국, 인도, 일본, AFTA, 중국, 호주-뉴질랜드	EU	EFTA ⁶⁾ , 대만, 미국
싱가포르	한국, EFTA ⁶⁾ , GCC ⁷⁾ , 미국, 파나마, 요르단, 뉴질랜드, 일본, 인도, 중국, 페루, 호주, TPP ⁸⁾ , AFTA	대만, 멕시코, 우크라이나, 캐나다, 파키스탄	EAC ⁹⁾ , 모로코, 스리랑카, 이집트
태국	뉴질랜드, 페루, 호주, AFTA, 일본	EFTA ⁶⁾ , 미국, 인도, 칠레, BIMST-EC ¹⁰⁾	EU, 남아공, 바레인, 중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AFTA, 일본	EFTA ⁶⁾ , 호주, 인도, 한국	칠레, 터키
말레이시아	AFTA, 일본, 인도, 파키스탄, 뉴질랜드, 호주	EU, TPP ⁸⁾ , 미국, 터키	한국, GCC, EFTA ⁶⁾
베트남	AFTA, 일본	한국, EU, TPP ⁸⁾	EFTA ⁶⁾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스리랑카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http://www.ftahub.go.kr>).

6) 유럽자유무역연합(1960년 창설).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
 7) 걸프협력회의(1981년 창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페르시아 만안의 6개 아랍산유국으로 구성
 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2005년 창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로 구성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현재 기존 4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베트남 등 가입희망국 8개국이 TPP 확대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
 9)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2000년 창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브룬디 등 5개국으로 구성
 10)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적·지역적 노력 전개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세안 회원국에서 교통, 전력 등 경제인프라의 취약성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개발 수요가 높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특히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전반적인 인프라의 질적 수준이 144개 평가대상국 중 90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표 3> 인프라 부문별 글로벌 경쟁력지수 평가순위

	종합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전력공급
브루나이	57	30	88	57	61	45
캄보디아	104	66	81	69	75	105
말레이시아	32	27	17	21	24	35
인도네시아	78	90	51	104	89	93
필리핀	98	87	94	120	112	98
싱가포르	2	3	5	2	1	6
태국	46	39	65	56	33	44
베트남	95	120	68	113	94	113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라오스, 미얀마: 자료 없음.

- 라오스와 미얀마의 경우, 세계은행의 물류실적지수(LPI)에서는 155개국 중 각각 109위, 129위, 교통인프라의 질 항목에서는 각각 107위와 133위를 기록하였음. 또한, 라오스와 미얀마 전력보급을 역시 55%와 26% 수준에 불과함.
- 아세안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환경 개선, AEC 형성을 위한 역내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경제개발계획에 적극적인 인프라 개발 의지를 표명함.
- 인도네시아: MP3EI(경제개발 마스터플랜, 2011년 수립)에 따라 전국을 총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특화육성 사업(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 확충, 교량 건설 등 포함)을 추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458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임(민간투자 유치액 포함).



- 태국: 대홍수 피해복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통합 수자원관리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로·철도·항만 등 주요 교통인프라 건설에 2020년까지 총 7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필리핀: 인프라 구축을 투자우선계획에 포함시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PPP)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ADB와 아세안은 아세안 국가의 경제성장에서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차원의 개발계획에 인프라 구축을 중점 협력분야에 포함시키고 있음.
- 특히, 아세안은 역내 연계성(Connectivity) 강화가 AEC 형성 목표(2015년)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교통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임.
-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에 의한 지역 개발계획 시행으로 개별국가의 투자 리스크가 경감되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개발자금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4> 역내 주요 지역개발 계획 및 중점협력분야

추진주체	계획 명칭	출범연도	중점협력분야
ADB	GMS ¹¹⁾ Program	1992	인프라(수송, 에너지), 통신, 관광, 농업, 인적자원
ASEAN	AMBDC ¹²⁾	1995	인프라, 무역, 천연자원, 인적자원
	IAI ¹³⁾	2000	인프라, 인적자원, ICT, 지역 경제통합
	ASEAN 연계성강화	2010	인프라, 역내 제도 개선, 인적 교류

자료 : ADB,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t 20* 및 KIEP, *한국의 메콩 지역 개발 중장기협력방안: 농업, 인프라 및 인적자원개발을 중심으로*.

11) Greater Mekong Subregion

12) ASEAN-Mekong Basin Development Cooperation

13)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Ⅲ. 아세안 경제성장의 제약요인

□ 고급인력 육성 체계 취약 등으로 '중진국 함정' 발생 가능성 상존

-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에서 고등교육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고급노동자 공급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아직까지는 대체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 기반은 취약함. 따라서 중진국에 해당되는 아세안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소득수준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보다 높은 국가들조차도 고등교육 여건이 세계 60위 이하로 분류되어 있음.
- 특히, 최근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인기영합주의 정책 등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최저임금이 점차 상승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비교우위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 ADB는 동 국가들의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표 5> 고등교육 부문별 글로벌 경쟁력지수 평가순위

	총 합	2차교육기관 등록률	3차교육기관 등록률	교육시스템
브루나이	57	12	98	25
캄보디아	111	118	118	58
말레이시아	39	103	61	14
인도네시아	73	95	85	47
필리핀	64	81	76	45
싱가포르	2	15	19	3
태국	60	92	54	78
베트남	96	94	87	72

자료: 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 라오스, 미얀마: 자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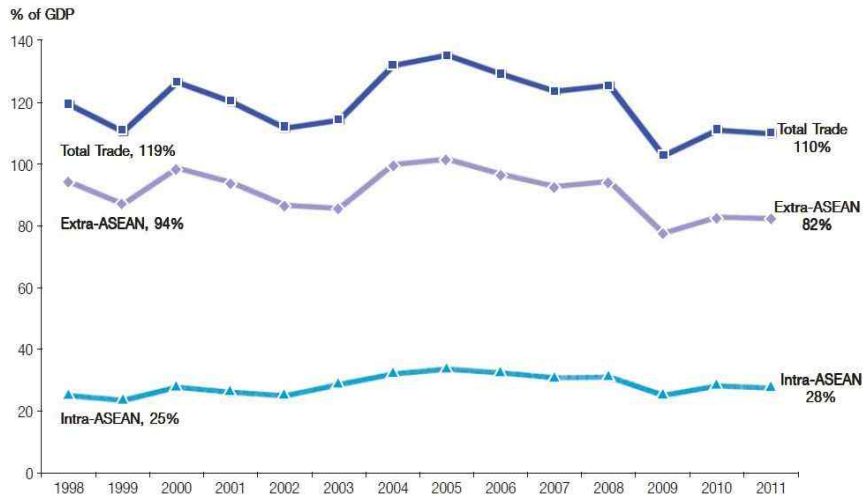
□ 대외충격에 취약한 무역구조

-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교역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아세안의 무역의존도가 여전히 100%를 초과하고 있어, 대외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



- 2011년 기준,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의 무역의존도는 50%에 미치지 않으나, 말레이시아(144.4%), 싱가포르(291.8%), 태국(132.8%), 베트남(162.6%) 등 4개국은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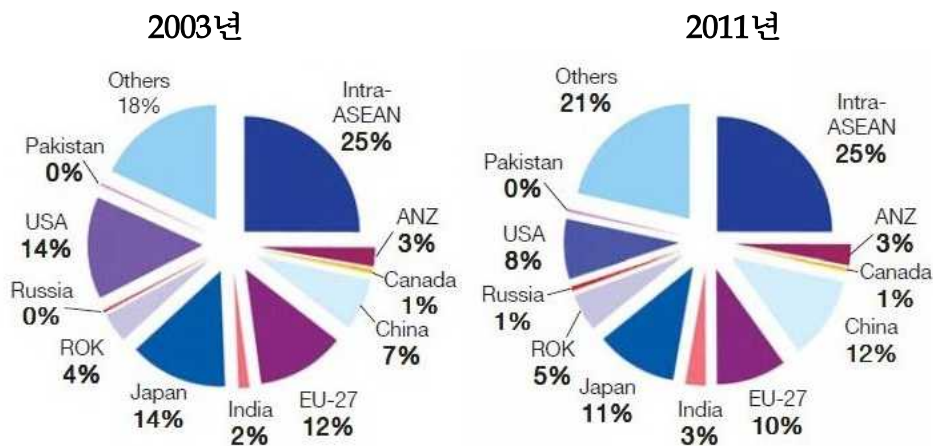
<그림 6> 아세안의 연도별 무역의존도 추이



자료: ASEAN 사무국,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2.

- 아세안 수출의 EU, 미국, 일본, 중국 등 4대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40%대를 기록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EU 비중은 2003년 보다 2011년에 감소한 반면 중국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4대 시장에 대한 수출 비중은 동 기간 중에 46%에서 41%로 감소하였음.

<그림 7> 아세안의 국가별 수출 비중



자료: ASEAN 사무국,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2.



- EU, 미국, 일본 등 G3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003년 40%에서 2011년 31%로 감소하였음. 하지만, OECD에 따르면 아세안이 수출한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 수출액 일부는 간접적으로 EU, 미국, 일본의 경기 변동에 노출되어 있음.

<표 6> 아세안 주요국의 대중국 수출액 중 G3에 대한 간접노출비중

(단위: %)

	EU	미국	일본	계
인도네시아	2.9	3.6	1.6	8.1
말레이시아	5.0	6.1	2.8	13.9
필리핀	5.5	6.7	3.0	15.2
싱가포르	1.0	1.3	0.6	2.9
태국	2.3	2.8	1.3	6.4
캄보디아	0.3	0.3	0.1	0.7
베트남	1.6	1.9	0.8	4.3

자료: OECD, *Southeast Asian Economic Outlook 2013*.

□ 국가간 발전 격차 등은 역내 통합 가속화의 걸림돌

- 노동력 이동, 개방 수준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강력한 지역적 의사결정체계 부재, EU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제통합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아세안 국가간 발전 격차가 2015년 AEC 창설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음.
- OECD는 2011년 인프라 부문에서의 아세안 회원국간 격차가 2005년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빈곤, 인적자원개발, 관광산업, ICT, 무역·투자 등 5개 부문에서는 격차가 유지되거나 소폭 축소된 것으로 평가함.
 - 하지만 관광산업 외에는 여전히 국가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통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였음.
 - 또한, 2005~2011년간 소득상위 6개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나머지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국가간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음.



IV. 시사점

□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은 충분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은 Deloitte와 미국 경쟁력위원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발표한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지수(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에서 현재 경쟁력 순위 20위 안에 포함됨.
-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향후 5년 후 경쟁력 순위가 현재 경쟁력 순위 보다 높아 제조업 성장잠재력이 타 국가보다 큰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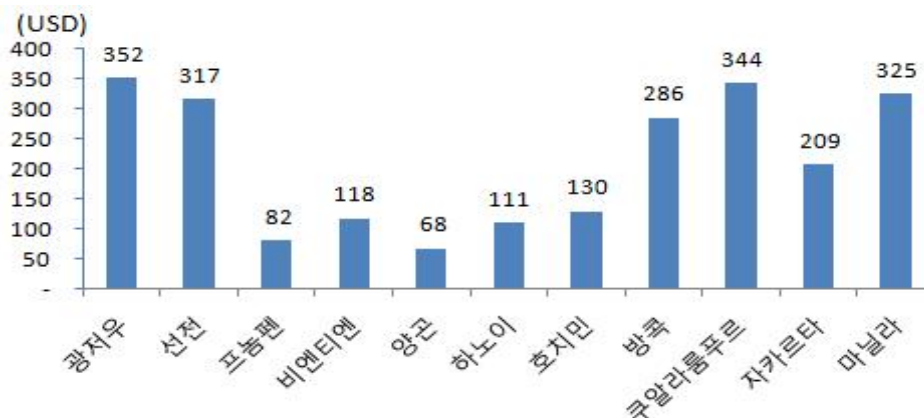
<표 7> 아세안 국가들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지수 순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현재 경쟁력	9	11	13	17	18
5년후 경쟁력	9	15	14	11	10

자료: Deloitte & U.S. Council on Competitiveness, 2013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경우 공장근로자 임금은 아직 중국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 집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주요 도시별 공장근로자 월 기본급 수준



자료: Jetro, the 22nd Survey of Investment Related Costs in Asia and Oceania(2012. 4).



- 하지만, 자본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아세안 국가에 투자할 경우에는 고급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지 인력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확대, 부품의 현지화 비율 조정 등 세밀한 진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우리기업의 인프라 및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필요

- 우리 기업이 아세안 국가의 인프라 확대 수요 및 향후 아세안 내수시장 성장을 현지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함.
- 중·저소득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ODA 및 당행 수출금융을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전수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함.
 - 한정적 원조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원조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에는 양허성차관 및 당행 수출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함.
 - KSP 및 무상자금은 경제성장 경험 전수 및 보건 등 사회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활용할 경우 한류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아세안 내수시장의 확대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관계, 향후 내수시장의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국가간 FTA 체결 등 시장 접근성을 보다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 시장에서 주로 경쟁하게 되는 중국과 일본은 모두 우리와 동일하게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상황이므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중진국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을 우선적인 FTA 협상 대상국으로 검토할 수 있음.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임영석 (3779-5704)
 yslim@koreaexim.go.kr